



## 엄마가 안된다고 했지?

송중웅/심리학 박사, 서울학습장애상담센터 소장

**며**칠 전 할인점에서 있었던 일이다. 물건을 사던 중이었는데, 뒤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니 초등학교 1학년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로봇 장난감을 들고 있었고 그 아이 엄마가 화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아이는 로봇을 사겠다고 떼를 썼고 이에 대해서 엄마는 이렇게 말했다.

“엄마가 안 된다고 했지.”

“그래도 갖고 싶단 말야”

“엄마가 안 된다고 했잖아. 너 엄마 말 안 들을래?”

엄마의 무서운 표정에 아이는 기가 죽은 듯 장난감을 내려놓고 엄마를 따라갔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 아이는 속으로 어떤 심정일까 하는 생각을 했다. 우선은 엄마의 화난 표정을 보면서 겁이 날 것이고, 그래서 엄마의 말에 복종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분명히 “왜 엄마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못 갖게 하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불만을 느낄 것이다.

아직은 어리니까 감히 불만을 표현 못하고 엄마 말에 순종하는 듯이 보이지만, 저 아이가 좀 더 커서 사춘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 어느날 갑자기 부모에게 화를 내고 대들지는 않을까?

상담을 하다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다. “아이가 어릴 때는 그렇게 말도 잘 듣고 착했었는데,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그런 부모들은 아이가 감압적인 부모 태도에 말은 못하고 불만만 차곡차곡 쌓아

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렇다고 아이가 원한다고 해서 시도때도 없이 장난감을 사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이쯤에서 “엄마가 안된다고 했지”란 말의 의미를 살펴보자.

이 말은 행동의 평가 기준이 엄마에게 달려 있다는 뜻을 전하고 있다. 엄마가 된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것이다.

아이는 엄마의 눈치를 살펴야 하고, 엄마가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그래서 엄마는 신같은 존재가 되어 아이는 엄마에게 점점 더 의존하는 마마보이가 된다.

아니면 아이는 자신의 소망을 꺾는 이유가 엄마의 생각 때문, 즉 엄마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 엄마에게 불만을 느끼게 된다. 이걸 부모-자녀 관계에 결코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렇다면 “엄마가 안된다고 했지”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건 간단하다.

아이가 어리더라도 무시하지 말고 그 이유를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설명해주면 된다.

아마 엄마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가 떼를 쓴다고 모든 것이 네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야. 너한테는 이미 로봇이 여러 개 있고, 그걸로도 충분히 놀 수 있잖아. 이걸 또 사는 것은 낭비일 뿐이야. 네가 아무리 떼를 써도 지금은 안돼. 네가 정 이 로봇을 갖고 싶다면 생일 선물로 사줄 수는 있어.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니?”

